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경영교육 만족도에 대한 실증 연구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김구배** · 정승호*** · 박상민****

요 약

의전원의 교육현실을 보면 교육기간이 4년으로 줄어들면서 기초 의학부문을 줄이고 임상의학부문을 늘리는 추세이며, 이론 강의보다 실습을 대폭 늘려 병원 실습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의학 공부에도 모자란 시간을 감안할 때 기초교양과목을 추가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인과 사회”라는 과목을 편성하는 의전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의전원생들의 경영교육품질과 경영 교육 만족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교육 품질 중 “즐거움”, “관심유발”,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도”는 교육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positive)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다른 관심변수인 “유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 경영교육 품질, 경영교육 만족도

* 논문접수일 2010년 7월 18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16일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과 한국산업경제저널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함

** 제1저자,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kkb3026@jbnu.ac.kr)

*** 공동저자,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uphoria999@hanmail.net)

**** 공동저자,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박사수료 (2772962@hanmail.net)

I. 서 론

우리나라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은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북대학교의 경우 2005년 6년제 의과대학에서 4년제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여 첫 해에 159명의 모집을 시작으로, 2011년 168명의 의전원생 모집이 확정되었다.

이공계 우수인력이 의전원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의사라는 전문직업인들의 미래보장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도 매우 높은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의사가 소득보장이라는 등식은 이미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동네 의원들의 폐업에 이어 준 종합병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 원인은 단순히 의료보험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의원이나 병원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하고 그 기반위에 사회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병원의 관리자인 의사들은 경영에 대하여 너무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의전원생들이 전문의가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의료시장의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치열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의전원의 교육현실을 보면 교육기간이 4년으로 줄어들면서 기초 의학부를 줄이고 임상 의학부를 늘리는 추세이며, 이론 강의보다 실습을 대폭 늘려 병원 실습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의학 공부에도 모자란 시간을 감안할 때 기초교양과목을 추가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인과 사회”라는 과목을 편성하는 의전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북대 의료원의 “의료인과 사회” 강의내용은 주로 개업을 겸비한 경영교육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1·2학년생 통합 강의로 4주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의전원생들의 경영교육품질과 경영 교육 만족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 설계

2.1 표본설정

본 연구에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초소양 교육이 경영교육 품질과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료인과 사회”과목을 수강한 대학원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지는 2009년도 1학기에 “의료인과 사회”과목을 수강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48부를 회수하였으나 설문에 대한 응답을 중단하거나 설문 내용과는 무관하게 특정 응답만을 일관되게 한 설문지로서 설문 응답에 대하여 신뢰 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144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설문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 경영교육의 품질, 그리고 교육 만족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성별, 학년, 나이, 출신대학(전공), 출신 지역, 병역의무 이행여부, 개업희망여부, 경영관련 수강 경험에 대하여 설문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영교육의 품질에 대한 설문은 수강하면서 즐거움, 경영에 대한 관심 유발, 기업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 증가, 미래경영활동에서의 유용성의 내용으로 구성하며,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수업 내용의 만족도, 강의방식의 만족도, 평가 방법의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교육 품질,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5점 척도(five-point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흐름은 설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대상자의 특성인 성별, 학년, 출신대학(전공), 출신지역, 개업희망여부, 경영과목 수강경험여부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통하여 설문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사항 및 교육 품질 및 교육 만족도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제시함으로써 설문 내용별 분포 특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설문대상자의 일반사항 중 교육 품질과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성별, 학년, 개업 희망 여부, 경영관련 과목 수강 경험 여부를 대상으로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실시하며 통계적 유의성은 χ^2 검정을 통하여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를 교육 만족도로 하고 독립 변수를 교육 품질로 사용하며, 독립변수 중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서 설문 대상자의 개인 특성인 성별, 학년, 개업희망여부, 경영과목 수강경험여부로 한 각각의 회귀모형을 검증한다.

III. 연구 결과

“의료인과 사회”과목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3-1>과 같다.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인

“수업내용의 만족도”, “강의방식의 만족도”, “평가방법의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모든 평균값이 “3.9” 이상으로 “보통”, “만족”사이의 응답 중 “만족”에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이 “4.00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 품질에 대한 설문인 “수강하면서 즐거움”, “경영에 대한 관심유발”, “기업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 증대”, “미래 경영활동에서의 유용성”에서 모든 평균값이 “3.3”이상으로 “보통이다”와 “그렇다” 사이의 응답 중 “그렇다”에 근접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업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 증대”가 “3.3851”로 상대적인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1> 기초통계량

설문내용	유효 표본	무응 답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성별	144	0	1.5278	0.5009	2.00	1.00	2.00
학년	143	1	1.4126	0.4940	1.00	1.00	2.00
나이	143	1	26.8462	3.5747	27.00	22.00	39.00
출신대학(전공)	141	3	2.7943	2.1129	2.00	1.00	6.00
출신지역	143	1	1.7622	0.7778	2.00	1.00	3.00
병역의무이행여부	83	61	1.3735	0.5112	1.00	1.00	3.00
개업희망여부	141	3	1.5319	0.5007	2.00	1.00	2.00
졸업후 희망개업기간	64	80	9.2656	4.5329	10.00	0.00	21.00
졸업후 희망개업지역	58	86	1.6897	0.9589	1.00	1.00	3.00
경영관련과목 수강경험유무	140	4	1.5429	0.4995	2.00	1.00	2.00
수강하면서 즐거움	143	1	3.9161	0.9531	4.00	1.00	5.00
경영에 대한 관심유발	143	1	3.8531	0.9783	4.00	1.00	5.00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도 증대	143	1	3.3851	0.9112	4.00	1.00	5.00
미래경영활동에서의 유용성	143	1	3.8881	0.9200	4.00	1.00	5.00
수업내용의 만족도	143	1	3.9580	0.9028	4.00	1.00	5.00
강의방식의 만족도	143	1	4.0000	0.9714	4.00	1.00	5.00
평가방법의 만족도	143	1	3.9231	0.8807	4.00	1.00	5.00
전반적인 만족도	143	1	4.0070	0.9154	4.00	1.00	5.00
적절한 경영학 수업시기	138	6	2.6304	1.2441	3.00	1.00	4.00
향후 보충해야 할 부분	129	15	2.1240	0.6847	2.00	1.00	4.00

3.1 빈도분석 결과

빈도분석은 설문 대상자들의 특성인 성별, 학년, 출신대학(전공), 출신지역, 병역의무, 개업

희망 여부, 대학 재학시 경영과목 수강여부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3-2>에 나타나 있다. 성별에 대한 설문결과 “남자”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44명 중 47.2%인 68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52.8%인 76명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대한 설문 결과 “1학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총 143명 중 58.7%인 84명이었으며, “2학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143명 중 41.3%인 5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으로 선택된 설문대상자들의 중 여자 응답자와 1학년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2> 설문대상자 특성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

구	분	빈도	상대빈도	유효상대빈도 ¹⁾	누적유효상대빈도
성 별	남 자	68	47.2	47.2	47.2
	여 자	76	52.8	52.8	100.0
	총 계	144	100.0	100.0	
학 년	1 학 년	84	58.3	58.7	58.7
	2 학 년	59	41.0	41.3	100.0
	총 계	143	99.3	100.0	
출신대학 (전공)	자 연 대	55	38.2	39.0	39.0
	공 대	43	29.9	30.5	69.5
	농 생 대	1	0.7	0.7	70.2
	수 의 대	0	0.0	0.0	70.2
	한 의 대	2	1.4	1.4	71.6
	기 타	40	27.8	28.4	100.0
	총 계	141	97.9	100.0	
출신지역	서울,경기	64	44.4	44.8	44.8
	전 북	49	34.0	34.8	79.0
	기타지역	30	20.8	21.0	100.0
	총 계	143	99.3	100.0	
병역의무 (남자만)	군 필	53	36.8	63.9	63.9
	미 필	29	20.1	34.9	100.0
	총 계	83	57.6	100.0	
개업희망 여 부	희 망	66	45.8	46.8	46.8
	미 희 망	75	52.1	53.2	100.0
	총 계	141	97.9	100.0	
대학재학시 경영과목 수강여부	수 강	64	44.4	45.7	45.7
	미 수 강	76	52.8	54.3	100.0
	총 계	140	97.2	100.0	

1) 유효 표본이란 전체 표본에서 응답을 하지 않은 “무응답치”를 차감한 표본으로 문항별로 무응답자가 없으면 전체 표본과 유효 표본이 일치하게 되며, 무응답자가 존재하면 문항별로 유효 표본이 달라진다.

출신 대학(전공)에 대한 설문 결과 “자연대”출신이 전체 141명 응답자 중 39.0%인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대”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141명 중 30.5%인 43명으로 다음 이었으며, 농대 1명, 한의대 2명이었다. “기타”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전체 141명 중 28.4%인 40명이었다.

출신 지역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경기” 출신이 전체 143명 응답자 중 44.8%인 64명, “전북”출신이 34.8%인 49명, “기타지역”이 21.0%인 3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전북지역 출신보다 타 지역에서 더 많이 진학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업 희망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희망”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141명 응답자 중 46.8%인 66명으로 나타났으며, “미희망”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3.2%인 75명으로 나타났다.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진로는 개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반반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에서 경영 관련 과목 수강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수강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140명 응답자 중 54.3%인 76명으로 나타났으며, “수강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140명 응답자 중 45.7%인 64명으로 나타났다.

3.2 교차분석 결과

교차 분석을 통하여 설문 대상자들의 특성 즉 성별, 학년, 개업희망여부, 그리고 대학 재학시 경영 관련 과목 수강 여부가 교육 품질과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3-3>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 특성 중 성별의 경우 교육 품질 측면에서 “수강하면서 즐거움”의 Pearson- χ^2 값이 13.207(p-value:0.010)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경영활동에서의 유용성”의 Pearson- χ^2 값이 10.784(p-value:0.029)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경영에 대한 관심 유발”의 Pearson- χ^2 값이 9.277(p-value:0.055)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 측면에서 “수업내용의 만족도”의 Pearson- χ^2 값이 11.350(p-value:0.023)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Pearson- χ^2 값이 12.241(p-value:0.016)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의방식의 만족도”의 Pearson- χ^2 값이 9.064(p-value:0.060)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표3-3> 교차분석 결과

설문내용	성별	학년	개업여부	수강여부
수강하면서 즐거움	13.207* (0.010)***	9.278 (0.055)*	4.109 (0.391)	6.628 (0.157)
경영에 대한 관심유발	9.277 (0.055)*	10.255 (0.036)**	2.079 (0.721)	3.953 (0.412)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도 증대	5.941 (0.204)	9.409 (0.052)*	2.593 (0.628)	4.901 (0.298)
미래경영활동에서의 유용성	10.784 (0.029)**	10.434 (0.034)**	3.411 (0.491)	7.272 (0.122)
수업내용의 만족도	11.350 (0.023)**	9.798 (0.044)**	2.651 (0.618)	5.309 (0.257)
강의방식의 만족도	9.064 (0.060)*	14.488 (0.006)***	1.628 (0.804)	4.044 (0.400)
평가방법의 만족도	3.998 (0.406)	11.893 (0.018)**	3.209 (0.523)	3.477 (0.481)
전반적인 만족도	12.241 (0.016)**	21.252 (0.000)***	2.212 (0.697)	3.108 (0.540)

† : 피어슨 카이제곱(p-value)

***는 1% 수준, ** 는 5% 수준, * 는 10%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응답자 특성 중 학년의 경우 교육 품질 측면에서 “수강하면서 즐거움”의 Pearson- χ^2 값이 9.278(p-value:0.055)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에 대한 관심유발”의 Pearson- χ^2 값이 10.255(p-value:0.036)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 증가”의 Pearson- χ^2 값이 9.409(p-value:0.052)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경영활동에서의 유용성”의 Pearson- χ^2 값이 10.434(p-value:0.034)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 측면에서 “수업내용의 만족도”의 Pearson- χ^2 값이 9.788(p-value:0.044)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방법의 만족도” 또한 Pearson- χ^2 값이 11.893(p-value:0.018)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의방식의 만족도”의 Pearson- χ^2 값이 14.488(p-value:0.006), “전반적인 만족도”의 Pearson- χ^2 값이 21.252 (p-value:0.000)로 전통

2) 지면 관계상 교차분석의 빈도와 상대빈도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강하면서 더 즐거워 했고, 경영에 대한 관심유발과 미래 경영활동에 더 유용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만족도 측면에서도 수업내용과 강의방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인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졸업 후 개업 희망여부와 대학 재학시 경영 관련 과목 수강경험 여부는 교육 품질과 교육 만족도 측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응답자의 특성 즉 성별, 학년이 응답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졸업 후 개업 희망여부와 대학 재학시 경영 관련 과목 수강경험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교육 품질인 즐거움, 관심 유발, 도움, 유용성을 선정하고, 통제변수로 교차분석에서 사용했던 성별, 학년, 수강경험, 그리고 졸업후 개업희망여부를 모형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e$$

<표3-4>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계수값	표준오차	t-값	p-값
(상 수)	0.887	0.313	2.836	0.005***
즐 거 움	0.484	0.083	5.851	0.000***
관심유발	0.197	0.071	2.790	0.006***
도 움	0.164	0.090	1.825	0.070*
유 용	0.033	0.095	0.352	0.725
성 별	-0.092	0.077	-1.198	0.233
학 년	-0.215	0.076	-2.815	0.006***
수강경험	0.090	0.073	1.222	0.224
개업희망	-0.001	0.075	-0.011	0.991
모 형	적합도	F-값 : 67.326(p-값 : 0.000)***		
통 계 치	설명력	Adj. R ² : 0.796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교육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 품질과 교차분석 결과 응답자 특성인 성별, 학년, 수강경험, 개업희망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²의 값은 0.796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67.326(p-값: 0.000)으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8 한국산업경제저널

변수별로 보면 먼저 “수강하면서 즐거움” 계수값이 0.484(p-value: 0.000)이고, “경영에 대한 관심유발” 계수값이 0.197(p-value: 0.006)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품질(즐거움, 관심)이 교육만족도(수업내용, 강의방식, 평가방법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positive)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년의 계수값이 -0.215(p-value: 0.006)으로 전통적인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변수를 코딩(coding)할 때 “1학년”을 “1”, “2학년”을 “2”로 하였다. 따라서 학년의 계수값이 부(negative)의 값을 보이는 것은 1학년일수록 교육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차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성별, 수강경험, 그리고 개업희망은 계수값이 각각 -0.092(p-value: 0.233), 0.090(p-value: 0.224), -0.001(p-value: 0.991)으로 전통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교육 만족도에는 교육품질 중에서 “즐거움”, “관심유발”, “도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positive)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저학년일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을 받으면서 즐겁고, 평소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고, 평소 기업과 사회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관심 변수 중 경영교육이 유용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이나, 수강경험, 그리고 개업희망 여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 경영활동에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직 경영기초과정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경영실무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학 전공자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전공자로서 경영기초과목의 교육 품질이 수강생의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육 품질 중 “즐거움”, “관심유발”,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도”는 교육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positive)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다른 관심변수인 “유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개인 특성인 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경영관련과목 수강경험”, 그리고 “개업희망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영학 전공자가 아닌 의학전문 대학원 학생들의 교육시기는 2학년보다는 1학년이 더욱 적절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1학년 학생들이 더욱 즐겁게 수강하고,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며, 따라서 교육효과 측면에서도 1학년 초 경영기초과목을 교과과정에 편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대학재학시절 경영관련 기초과목 여부에 따라 학생들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1학년에 기초과목을, 2학년에 기초를 응용한 실무 교육내용(ex. 개업준비과정 등)을 개설하는 것도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트랙과정측면에서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 변수 이 외에 교육 품질과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예컨대 교육자의 마인드, 교육환경(강의실 환경, 학교의 지원 정도 등), 응답자의 개인상황(적성, 기초학력 등) 등 변수로 측정하여 연구 설계를 한다면 더욱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을 “의료인과 사회”를 수강하는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설정 하였는데, 경영기초과목 교육 품질 및 교육만족도에 대한 구성 비율에 맞는 표본추출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표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엄밀한 조사과정을 통해 교육 품질이 교육 만족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매개변수를 개발하는 것까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주미, 오상훈, 양재경(2007),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연구원 기본연구, 07-16.
- 민재형, 이대선(1997), “고객지향적 대학교육: 도전과 기회 -강의/학습 과정의 품질향상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제1권 제2호, 123-138
- 박준호, 황국재(2000), “지식경영과 회계학교육”, 경영교육연구, 제4권 제1호, 29-45.
- 이양현, 김지범, 진동민(2006), “현행 세무회계교육과정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업무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회계정보연구, 제14권 제1호, 1-17.
- 이용교 (1998), “경영학 전공자의 학습스타일 상의 특성과 수업방법”,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1호, 105-128
- 정충영, 최이규(2006),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제4판”, 무역경영사, 서울.
- Albrecht W. Steve and Robert J. Sack.(2000), "Accounting Education : Charting the Course through a Perilous Future", *Accounting Education* 16, 1-72.
- Brenda A. Porter and Shirley A. Carr.(1999), "Form Strategic Plan to Practical Realitie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urriculum",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Vol. 14. No.4(November), 565-588.
- Lee, D. W. and C. Blaszczyński(1999), "Perspective of Fortune 500 Executive on the competency Requirements for Accounting Graduate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Nov/Dec) 104-107

The Empirical Research in Management Educational Satisfaction of MS Student's: In the JBNU School of Medicine

Ku-Bae Kim* · Seung-Ho Jeong** · Sang-Min Park***

Abstract

When we seeing the educational actuality, it reduces a fundamental medical section and is a tendency which increases a clinical medical section because of decreasing in 4 years of training period, thus hospital actual training increasingly strengthens than theoretical lectures. When we considering the lack of the time to study, a number of school of medicine which is organizing a subject 'the medical staff and the society' have increased for preparing the future,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add a fundamental liberal arts. There is a propose which researches positively about management educational quality and management educational satisfaction of the paper. According to result of research, educational quality demonstrated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to an educational satisfaction but other variable 'Usefulness' is unable to statistically influence it.

Keywords : management educational quality, management educational satisfac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degree cours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